

▶ 자산시장 충격... 전쟁 확산땐 '유가 폭등' 후폭풍 우려

금융시장·유가 전망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우 전쟁)처럼 세계 금융시장을 장기간 뒤흔들 촉매로 작용할까. 아니면 중동 지역 분쟁 중 하나로 '찾잔 속 태풍'에 그칠까. 현재로서는 조심스럽게 후자가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쟁이 길어지고 확산한다면 향후 국제 유가가 130달러까지 치솟는 원자재 '슈퍼 스파이크(대폭등)'을 불러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시아 증시 및 가상자산 시장 흔들

폭격을 맞은 곳은 이란과 중동지역만이 아니었다. 전쟁 공포에 아시아 증시와 암호화폐 등 자산시장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다. 2일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35% 하락한 5만8057.24에 마감했다. 대만 가권지수는 0.90% 하락했다. 호주 S&P/ASX 200지수와 홍콩 항셱지수 등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가상 자산도 흔들렸다. 공습 직후인 지난달 28일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6만 3038달러까지 약 3.8% 하락하며 대규모 청산이 발생했다. 가상자산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에서 약 1280억달러(185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가상자산 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는 16점으로 극단적 공포 상태를 가리켰다. 이날도 오후 3시30분 현재 비트코인은 6만 6000달러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금 선물 가격은 장 초반 3% 넘게 급등해 온스당 5350달러를 넘어서면서 지난 1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자산시장이 출렁이자 국내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은 3일 열리는 증시로 향한다. 증권가는 이번 공습이 중동 지역 전면전으로 확대할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단기적으



미국의 이란 공격 여파로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2일 서울 시내 금은방에서 직원이 금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강세장인 국내 증시가 장기적인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은 크지 않다고 평가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과거 1~4차 중동전쟁 당시 S&P 500 주가가 전쟁 직후 평균 1.0% 하락했으나 1개월 후 2.5% 상승으로 회복된 점을 거론하며 "사태가 수주 이상으로 장기화하거나 전면 무력 충돌로 격화되지 않는 한 방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충격은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태를 오래 끌기는 어렵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그칠 것

이라고 말했다. ◆과거 빅 이벤트, 하락 만큼 반등도 커 과거 전쟁이나 경제위기 같은 대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호주 투자 분석 업체 카퍼리포트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발발 다음 해인 194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까지 81년 동안 9·11테러, 리먼브러더스 파산, 오일쇼크 등 29개 대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미국 다우평균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18일이었고, 하락 폭은 11.6%였다. 그리고 저점부터 3개월 뒤에는 평균 11.1%, 6개월 뒤에는 15.8%, 1년 뒤에는 24.7% 각각 주가가 올랐다.

이런과 비슷한 지역 분쟁이었던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때는 주가가 13% 빠졌다가 3개월 뒤 2%, 6개월 뒤 16% 반등했다. 1950년 6·25 한국전쟁 때에도 12% 떨어진 주가가 3개월 뒤 15% 상승으로 바로 뛰어올랐다.

코스피도 코로나19 사태 때 다우평균 지수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에만 의존해 지나친 낙관론에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국계 투자은행 한 관계자는 "역사는 시장이 어떤 특정한 갈등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투자자들은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일본의 미국 진주만 공습 당시에는 다우평균 하락세가 6개월 넘게 장기화했다가 1년 뒤에야 반등했다. 1973년 중동 오일쇼크 때에도 저점 3~6개월 후에는 상승했지만 1년 뒤에는 오히려 저점 대비 25%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전쟁 보다 유가발 후폭풍이 더 문제 전문가들은 오히려 전쟁보다 유가나 인공지능(AI)공포, 기업 실적, 금리인하 지연 등이 더 큰 리스크(위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산유국의 수출 통로다.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30%가 지나간다.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경제연구소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봉쇄되고 군사적 충돌이 확산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배럴당 70달러 수

준인 현재보다 70% 이상 높다.

시장에서는 이란 사태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쏠림' 현상을 부추기며 외환·주식시장을 강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시장참여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전쟁 자체보다 전쟁이 불러올 상품가격 불안정성 확대, 물가 상승 압력 고조, 실물 경기 침체 등과 같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동반되는 후폭풍이다. '스물 오븐 이코노미'(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에는 더 치명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당시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이고 물가를 불안하게 만들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일부 봉쇄해 유가가 1년간 배럴당 100달러로 오르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국의 무역수지가 408억달러 줄고 물가 상승률은 1.3%포인트(p)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 석유 공급이 5% 감소하면 실질 GDP는 0.6%p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때 내놓은 보고서에서 국제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100달러에 도달시 경제성장률 0.3%포인트 둔화, 소비자물가 상승률 1.1%포인트 상승, 경상수지 300억 달러 이상 악화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 한 관계자는 "금융시장이 미국의 공격 가능성을 예상했고, 위험이 자산가격에 일부 반영된 만큼 이란 사태는 '시한부형 위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앞으로 전면전으로 확대될지, 단기전일지 장기전일지 등에 따라 시장에 추가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주말 & 영양

올해 갈 곳은 영양입니다

월·화·수·목·금 ♥ 영양

영양 가있는 ~ 주말!
영양가 있는 ~ 생활!



